

새로 발견된 湖南板 〈父母恩重經諺解〉 4종의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n 4 Newly Found Jeolla-do Editions of *Bumoeunjungkyeonghae*

송 일 기(II-Gie Song)**

박 민 희(Min-Hee Park)***

〈 목 차 〉

- | | |
|---------------------------------|-------------------------------|
| I. 緒 論 | 3. 井邑 內藏寺板(1653년) |
| II. 〈父母恩重經〉의 板本 現況 | 4. 井邑 碧松臺板(1760년) |
| 1. 現存本 〈父母恩重經〉의 板本 現況 | IV. 湖南板 〈父母恩重經〉 諺解本 4종의 主要 特徵 |
| 2. 〈恩重經〉 諺解本の 底本 및 系統 | 1. 附錄의 收錄 |
| III. 湖南板 〈父母恩重經〉 諺解本 4종의 書誌的 分析 | 2. 附錄의 收容 |
| 1. 長城 白岩寺板(1628년) | V. 結 論 |
| 2. 全州 鳳栖寺板(1651년) | |

초 록

이 논문은 호남지역에서 개판된 은중경 언해본 4종을 새로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기 위한 글이다. 은중경 언해본은 새로 소개하는 4종을 포함하여 현재 모두 36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14종이 호남지역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새로 소개한 4종 중 3종에는 〈십법계승〉과 〈십팔지옥〉이 부록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부록 형식은 1563년에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개판된 판본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4종 가운데 백암사본(1628년)과 내장사본(1653년)에는 동일한 부록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송광사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키워드: 은중경, 부모은중경,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송광사, 백암사, 봉서사, 내장사, 벽송대, 십법계승, 십팔지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4 different Jeolla-do editions of *Bumoeunjungkyeonghae*(父母恩重經諺解) which were newly found recently. Editions of *Eunjungkyeong*(恩重經) translated in Korean reach 36 editions including these 4 editions. Among 36 editions, 14 editions were published in Jeolla-do. 3 editions of these newly found editions have attachments of 〈Sipbeopgyesong(十法界頌)〉 and 〈Sippaljiok(十八地獄)〉. The feature of these attachments' form was started since 1563 edition of Songgwangsa in Jeolla-do. In particular, 1628 edition of Baegamsa and 1653 edition of Naejangsa have same attachments.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these 2 editions were copied and engraved based on Songgwangsa edition.

Keywords: Eunjungkyeong, Bumoeunjungkyeong, Bulseoldaebobumoeunjungkyeong, Songgwangsa, Baegamsa, Bongseosa, Naejangsa, Beoksongdae, Sipbeopgyesong, Sippaljiok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allosa@empal.com)(공동저자)

• 접수일: 2010년 5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7일 • 최종심사일: 2010년 6월 25일

I. 緒論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많이 『恩重經』을 간행 유포한 나라이다. 이는 조선 사회가 ‘崇儒抑佛’이라는 국가이념 아래 성리학을 근간으로 ‘孝’를 중시한 국가인 까닭에 불교가 민중에 적응해 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것에는 현재 살아있는 자신의 복덕과 죽은 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공덕의 종교적 의미가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조선시대 전국의 사찰에서 간행한 불교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공덕경 중에 『法華經』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은중경』 또한 빈번하게 개관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일찍부터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대상으로 삼아 그 처음 단계로 전국적 개관현황을 조사하고 계통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었다.¹⁾ 이러한 조사를 통해 종래 밝혀진 수량보다 2배 이상이 많은 85종의 판종이 확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업적은 『은중경』을 최초로 언해한 인물과 그가 거주한 지역을 밝혀냈다는 사실이다.²⁾

조선시대 세종의 주관으로 한글이 창제된 이래 순수 한글로 쓰여진 문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국한문 혼용의 언해본 또한 전체 문헌의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은중경』의 경우 최초의 언해자와 언해지역이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간행 사찰이 팔도에 걸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이 글에서 소개하는 4종을 포함하여 모두 36종의 언해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비록 『은중경』은 위경의 범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단일 불경으로 이처럼 간행빈도가 높은 사례는 흔치 않다. 이처럼 동일 언해본이 시간과 지역을 달리하며 간행된 경우는 서적사 및 국어사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그런데 필자가 수년전에 전반적인 판본 현황을 조사한 이후 근래에 호남지역에서 개관된 4종의 『은중경』 언해본을 새로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들 4종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고, 편집체계상 다른 판본과는 상이한 특징으로 보이는 부록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父母恩重經〉의 板本 現況

1. 現存本 〈父母恩重經〉의 板本 現況

『은중경』은 본래 중국에서 찬술되어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경전 중 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 말 이전에는 ‘父母恩重經’으로, 그 이후에 완전한 서명은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알려져

1) 宋日基, “韓國本 『父母恩重經: 漢文』의 板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9집(2000. 06), pp.179-218.

2) 송일기,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2집(2001. 12), pp.181-200.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나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판본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에 사본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한 이래로, 여말선초 이후로 급격한 간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원나라로부터 시작되어 송대에 확립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지식층을 중심으로 일대 사상적 변화과정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처럼 성리학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신진사류의 등장과 더불어 불교세력이 점차 쇠락하는 시점에 『은중경』이 비약적으로 출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를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하여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조선의 유교 중심 사회에 불교계가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된다.

한편으로 조선의 건국 기반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던 세종대에 이르러 治者 중심의 효도 교육을 목적으로 수천부에 달하는 ‘行實圖’의 대규모 간행이 국가적 출판사업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된 바 있다. 이 행실도는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해 ‘三綱行實’과 ‘二倫行實’, 그리고 이를 합편한 ‘五倫行實’이란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³⁾ 이에 불교계는 민간 및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은중경』의 간행이 병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효행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은중경』은 어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사찰에 편중되지 않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조선시대 전시기 동안에 걸쳐 계속적으로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조선불교의 민중성과 祈福의 性向을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 이는 비단 『은중경』의 경우에서만 살펴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 대략 160여종의 간행 경향을 보이고 있는 법화경 등의 불경 간행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불경의 간행은 비록 사찰에서 주관은 하고 있으나, 그에 소용되는 경비는 대부분 민간 시주자들의 헌금에 의해서 충당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주의 기본적인 의도는 가문의 번영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데 있었으므로, 다분히 기복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불경의 간행동기가 공덕을 기원할 의도에서 시주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효행심을 민간에 널리 전파하였던 긍정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불교서적의 다양한 판본의 출현과 광범한 유통을 초래하여, 불교판본학의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은중경은 단순히 특정 종류의 판본만을 중심으로 간행되지 않았고, 漢文本·諺解本·한글본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판되었다. 또한 특정 板種에서도 여러 형태의 다양한 형식으로 개판된 판본이 출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 민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의 사이사이에 版畫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독특한 편집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이채롭다. 그리하여 일찍이 『은중경』의 판본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와 더불어 국어학 분야에서 중세국어의 변천과정과 고찰한 어학적 분석이 시도되었으며, 한편 그 내용을 중심으로 유교의 『孝經』과 비교 연구하는

3) 송일기, “朝鮮時代『行實圖』板本 및 板畫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1집(2001. 06), pp.79-12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2호)

종교학적 접근도 보이고 있으며, 근래에는 본문의 판화에 대한 미술사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불교 서지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그 동안 이에 관한 연구가 특정 판본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종래의 연구가 서지학적 측면의 종합적인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까닭에 경우에 따라 억측이나 부실한 내용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최근에 은증경 판본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 전국의 공사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주요 사찰과 개인 소장가의 藏書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조사에서는 대략 40여종에 불과하였으나, 필자는 85종에 이르는 판본을 조사하여 45종의 새로운 판본을 추가로 발굴하였다.⁴⁾ 이 가운데 태종 7(1407)년에 궁실에서 간행된 鳩摩羅什 譯本과 명종 1(1545)년에 처음으로 언해한 初譯本 등 학계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판본을 많이 발견하였다. 필자에 의해 조사된 85종을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부모은중경』의 현존 판본 현황

板種	系統別 板本現況						數量
	戊午本系	什譯本系	合部本系	花岩寺本系	龍珠寺本系	獨自本系	
漢文本	5종	4종	15종	15종	2종	4종	45종
諺解本	初譯本系		祖院庵本系		金山寺本系	한글본계	40종
	30종		2종		4종	4종	
합계							85종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발견된 은증경 판본은 한문본 45종을 비롯하여 언해본 36종과 한글본 4종으로 모두 85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을 대상으로 한문본 45종을 판화의 양식과 서체의 특징, 그리고 행자수 등 板式의 특징에 따라 크게 5계통으로 구분하였으며, 언해본 역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3계통으로 구분하였다.

2. <恩重經> 諺解本の 底本 및 系統

가. 諺解의 底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언해본은 일반적으로 언해본보다 앞서 편찬 간행된 한문본을 저본으로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의해 언해 보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⁵⁾ 그러나 언해본 중에 처음으로

4) 필자가 지난 2000년에 쓴 논문에는 총 77종으로 밝혔으나, 그 후로 8종이 새로 추가되어 현재는 모두 85종으로 집계된다(宋日基, “韓國本 『父母恩重經: 漢文』의 板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9집(2000. 06), pp.179-218).
5)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언해본에서 한문본으로 축약 재편되는 사례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宋日基, “禪家龜鑑成立考,” 書誌學研究, 第7輯(1991), pp.33-54).

언해한 사람이 밝혀진 경우는 비록 국가기관에 소속된 전문 번역가라 하더라도 그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은중경』의 경우는 初譯本의 발문을 통해 전라도 완주 인근에 거주했던 吳應星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해되었던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지리적 언어 현상의 일단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처럼 은중경 언해본의 경우는 언해자, 언해지역, 최초 언해시기 등을 밝힐 수 있는 최초의 언해본이 현존하고 있다. 그런데 은중경은 최초 언해본이 편찬되기 이전에 이미 한문본이 적어도 20종 이상이 간행되었던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들 판본은 고려 戊午本 계통의 판본이 5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什譯本 계통이 4종, 合部本 계통이 4종, 花岩寺本 계통이 6종이며, 그리고 木同의 地藏殿에서 개관된 1종을 합하여 모두 20종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20종에 이르는 다양한 한문본 가운데 최초 언해자인 오응성은 과연 어떤 판본을 저본으로 선정하였을 것인가.

그리하여 이 20종의 한문본 가운데 언해의 底本이 된 판본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추정해 보았다. ① 초역본에 수록되어 있는 吳應星의 跋文에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曾祖父 吳孝綿이 대시주로 참여하여 간행하였던 판본이 저본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고, ② 그리고 초역본과 형태적 특징이 가장 유사한 판본을 찾아 내기 위해 판식 및 판화의 특징을 상호 비교해 보고, ③ 끝으로 최초 언해자 오응성이 비교적 쉽사리 입수해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은 판본을 밝히기 위해 그가 거주했던 인근 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로 초역본의 오응성 발문에 의하면, 조선 태조 이래로 寶城吳氏 吳蒙乙 집안의 願刹로 생각되는 遠燈庵⁶⁾에서는 吳應星의 曾祖父 吳孝綿이 대시주로 참여하여 이곳에서 개관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보성 오씨와 원등암과의 밀접한 관계는 증조부의 『은중경』 간행 사실보다 앞서 5대조인 대장군 오몽율이 멀리 중국에서 구입해 온 옥구슬 10개를 家寶로 삼지 않고 원등암의 불전에 헌납하였던 인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절에서는 『은중경』을 포함하여 단 한 종의 불서도 간행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吳孝綿 등에 의한 은중경의 간행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오히려 遠燈庵의 대본사인 威鳳寺를 포함하여 인근의 사찰 刊本을 대상으로 조사해 봄이 타당할 듯하다.

둘째로는 오응성에 의해 언해되기 이전에 개관된 20종은 판본의 판식적 특징과 판화의 양식에 따라 대략 위에서 언급한 4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계통의 모본인 원간본만을 검토해 보면 쉽게 특징을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본문에 배치되어 있는 판화의 특징만을 대조

6) 그런데 보성오씨 일족의 원찰로 보이는 遠燈庵은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의 淸涼山에 소재하는 太宗 계통의 조그만 사찰로 威鳳寺의 末寺로 알려져 있다. 이 절은 신라시대 普照선사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가, 나말여초에 道誥국사에 의해서 중창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震默선사가 3創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寺名을 보조선사가 木堯를 날려보낸 곳이라 하여 木堯庵으로도 불려졌다. 현재는 遠燈寺로 개칭되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되어 있다.

해 보아도 누구나 쉽게 식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검토 결과, 초역본은 花岩寺 계통의 판본과 형태적 특징이 가장 일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화암사판을 복각 또는 번각한 판본이 현재 15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응성에 의해 언해되기 이전에 개판된 판본은 6종에 불과하다. 이 6종은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1441년과 1484년에 간행된 판본 2종이 있으며, 전라도 전주 원암사에서 1452년에 간행된 판본, 전라도 진안 증대사에서 1461년에 간행된 판본, 전라도 광주 도솔암에서 1534년에 간행된 판본, 그리고 경상도 밀양의 만어사에서 1468년에 간행된 판본 등이 현전하고 있다. 이 중 전라도 판본이 무려 5종에 이르고 있으며, 경상도 판본은 1종이다. 언해자 오응성이 거주했던 지역과 가장 근접한 곳은 전라도의 고산과 전주이다. 그리하여 이들 판본과 초역본의 형태적 특징을 각각 비교해 본 결과, 1441년에 전라도 고산의 花岩寺에서 간행된 판본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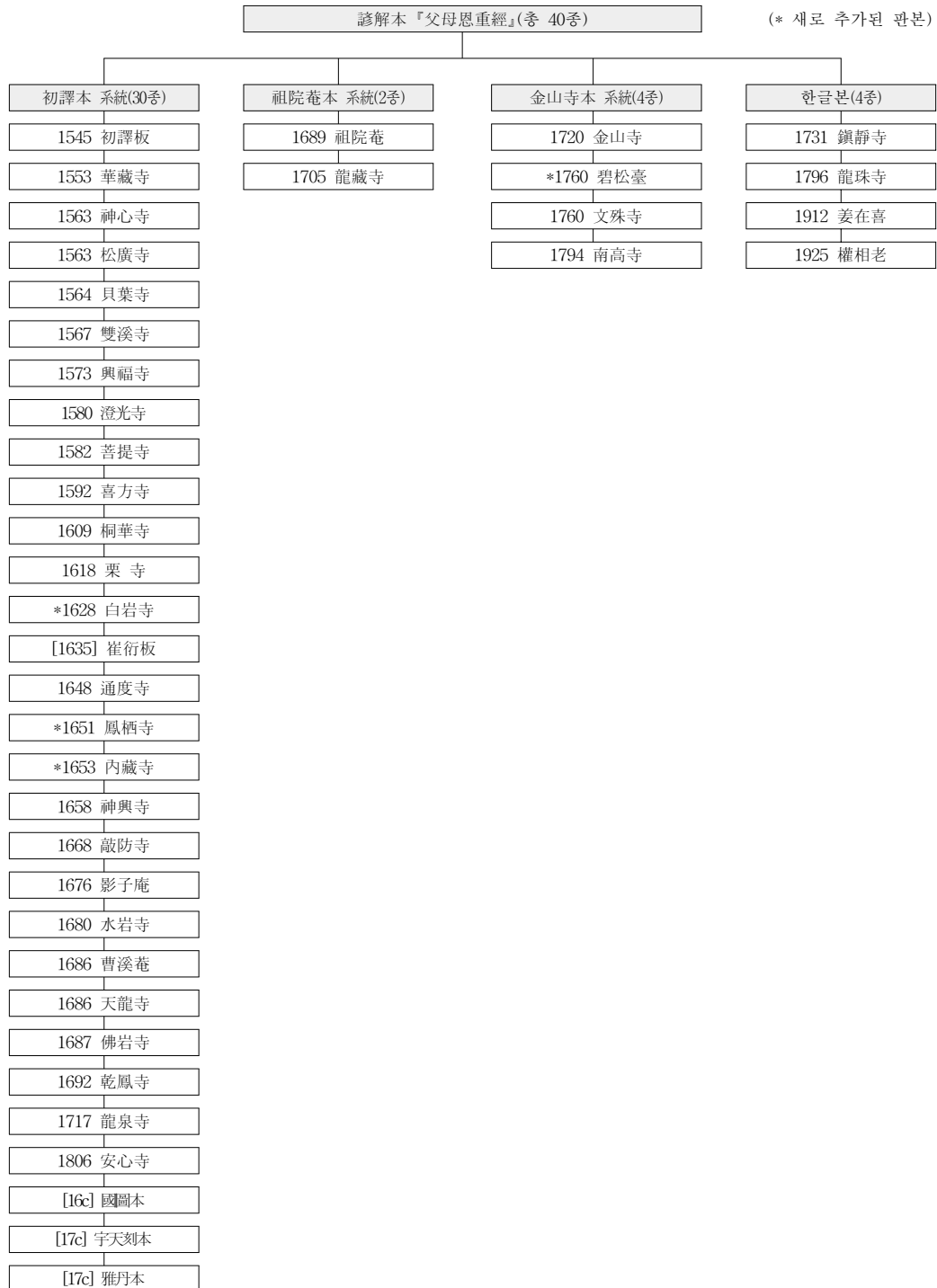
셋째로 初譯者 吳應星이 당시 거주하였던 지역은 발문에 보이는 西方山과 遠燈庵이 위치하는 인근 지방으로 생각된다. 서방산은 전주부의 동북쪽 25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며, 원등암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청량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언해자인 오응성은 지금의 全州나 그 인근의 完州지방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가 살았던 전주나 완주 인근 지역의 사찰에서 『은중경』을 간행한 바 있는 곳으로는 전라도 고산의 花岩寺와 전주의 圓岩寺가 주목된다. 그 결과, 오응성이 언해의 저본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할 가능성이 보이는 판본은 화암사판과 원암사판으로 압축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응성이 언해의 저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은 화암사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근거로 화암사본의 書體 및 版畫의 특징이 初譯本과 매우 유사한 듯 하며, 또한 花岩寺는 바로 吳應星이 살았던 지역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⁷⁾ 그렇다면 그 후 이 초역본을 저본으로 과연 어떠한 유포과정이 전개되었을 것인가. 언해본의 계통에 따라 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諺解本의 系統

현재까지 발견된 은중경 언해본은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전라도 지역에서 개판된 4종의 판본을 포함하여 모두 36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개판사실은 알려져 있으나 실물이 나타나지 않은 사례가 없지 않으며, 여기에 순한글로 쓰여진 은중경 4종을 포함하면 현재 40종이 전존하고 있다. 이들 40종 중에 국한문 혼용의 언해본만을 대상으로 판화와 서체, 그리고 판식의 특징으로 구분해 보니,⁸⁾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계통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7) 송일기,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2집(2001, 12), pp.181-200.
 8) 언해본의 계통구분의 특징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논고가 있으니 참고 바람. “韓國本『父母恩重經: 언해·한글』의 板本 및 한글서체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5권, 제2호(2000 여름), pp.1-30.



〈그림 1〉 은종경 언해본의 계통도

위의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계통의 한문본 외에도 1545년에 전라도 완주 인근에 거주했던 오응성이 화암사본을 저본으로 처음으로 번역한 이래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36종의 언해본과 4종의 한글본이 간행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역에서 간행된 판본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언해본 개관 현황(*간기 미상본 3종 제외)

지역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황해
판종	1658신흥사 1692건봉사	1553화장사 1687불암사	1582보리사 1592회방사 1609동화사 1648통도사 1668고방사 1680수암사 1686조계암 1686천룡사	1545초역본 1563송광사 1573홍복사 1580정광사 1628백암사 [1635]최연 1651봉서사 1653내장사 1676영자암 1720금산사 1760벽송대 1760문수사 1794남고사 1806안심사	1563신심사 1567쌍계사 1618울 사	1689조원암 1705용장사	1564패엽사 1717용천사
종수	2종	2종	8종	14종	3종	2종	2종

위의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간기 미상본 3종을 제외한 33종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전라도에서 14종이 개관되어 가장 많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배의 간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선행의 조사 이후에 최근 4종의 판본을 새로 발견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전라도 지역의 전주 및 정읍 일대의 사찰에서 개관된 판본이다. 그리하여 다음에서 이 4종의 언해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湖南板 <父母恩重經> 諺解本 4종의 書誌的 分析

1. 長城 白岩寺板(1628년)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은중경 언해본은 1545년에 전라도 완주 인근에 거주했던 오응성에 의해 처음으로 언해되어 간행되었다. 필자가 『恩重經』의 초역본에 대해 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까지 언해본 중에 최고본은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의 小倉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華藏寺板(1553年刊)으로 알려져 있었다.⁹⁾ 그러나 초역본은 화장사본보다 8년이나 앞서 간행되었을 뿐

만 아니라, 발문에 언해자가 밝혀져 있어 이 책이 처음으로 언해된 初譯本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초역본이 전라도에서 간행된 이래 1806년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개판되기까지 크게 3계통의 35종에 달하는 많은 판본이 간행 유통되었다. 이처럼 널리 대량으로 유통된 언해본의 지역별 개판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많이 개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 언해본은 1628(인조 6)년에 전라도 장성의 백암사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으로 보인다.



〈사진 1〉 장성 백암사판(1628년)

백암사본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四周單邊, 半郭 19×15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5.3×18.4cm,
 刊記: 崇禎紀元之元(1628)年7月日 長城白岩寺開板

전후의 표지는 원래 상태로 보이며 표지의 좌측 중앙부분에 ‘父母恩重經’이란 표제가 묵서되어 있다. 표지는 4침으로 제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책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형태이며, 오히려 일본 책에서 주로 보이고 있다. 책의 크기는 25.3×18.4cm로 추정된다. 표지를 열면 이면에 ‘이글은산모

9) 이 판본은 그동안 최현배의 『한글갈』에 언해 최고본으로 소개되어 있다가, 최근 그 실체가 兪弼在에 의해서 밝혀졌다(兪弼在, “華藏寺板『父母恩重經諺解』에 대하여,” 震檀學報, 제84호(1997), p.227 참조). 그러나 필자에 의해 初譯本이 소개되어 화장사판의 의미는 크게 주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재필은 결론적으로 화장사판의 발견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국어자료를 추가하게 되었던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초역본의 覆刻(또는 鑿刻)에 불과한 자료에서 지역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가해산을못하여...해산도잘한다하더라'라는 글이 한글로 묵서되어 있는데, 임신부가 해산을 앞두고 순산을 염원하는 내용이다.

권수의 서명은 먼저 한자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부모의은 갑는경이라'라는 한글 서명이 부기되어 있어 초역본의 형식과 동일하다. 그리고 다음 행으로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본문은 앞부분에 한문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로부터 1자를 내려서 한문의 내용을 번역한 언해문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판식의 특징을 보면, 邊欄은 四周單邊으로 광곽이 비교적 굵직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판면에는 부분적으로 계선이 나타나 있다. 匡郭의 크기는 반곽을 기준으로 세로 19cm이며, 가로 15cm로 측정되는데, 수차의 복각 과정에서 초역본에 비해 세로의 길이가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半葉을 기준으로 모두 10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행은 18자씩 배자되어 있다. 板心部에는 어미의 상하로 大黑口가 들어 있으며, 그 사이에 상하로 흑어미가 내향하고 있다. 상하의 어미 사이로 '愿'이라는 板心題가 새겨져 있으며, 그 아래로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본문의 끝에는 '報父母恩重經'과 '佛說往生真言'이 들어 있으며, 권말에는 <十法界頌>과 <十八地獄>이 부록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라도 판본에서 주로 보이고 있다. 부록에 이어 짝막한 발원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願以此功德奉爲
主上殿下壽萬歲 干戈永熄國民安 次願刊經
施主大應伏爲梁順溢兩主靈駕 小女李氏
伏爲李春瑞兩主靈駕 咸證菩提共登樂
岸 受諸佛之付囑與觀音而同遊 抑願引
經施主等曰夫曰婦 盡涵泳於福波之子之
孫 共逍遙於壽岳 願諸有情等同入 無爲之
域云爾時

이 발원문에 이어 '崇禎紀元之元(1628)年7月日 長城白岩寺開板'이란 간기가 보이고 있어, 이 책이 전라도 장성의 백암산에 소재하고 있는 백암사에서 1628년에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기의 다음 행에는 간경시주 '梁大應'과 '李大春' 등의 시주자가 기입되어 있으며, 각수는 '法海'가 기재되어 있고, 간선으로는 '眞正'이 주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특징은 초역본과 흡사하나 여러 차례 복각 간행되면서 표기와 오자부분이 일부 수정되어 있으며, 판화의 <父母十恩圖> 부분의 집의 기둥이 검정색으로 변화되어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판화 12도인 <周堯須彌圖> 역시 양각부분을 넓게 하여 초역본의 음각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 〈援喩八種圖〉의 상단부분의 寶蓋나 雲紋이 대부분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全州 鳳栖寺板(1651년)

다음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언해본은 1651(효종 2)년에 전라도 전주의 서방산 봉서사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이 판본 역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으로 보인다.



〈사진 2〉 전주 봉서사판(1651년)

봉서사본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四周單邊, 半郭 18.8×14.3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6.6×18.0cm,
 刊記: 大清順治8年歲次辛卯(1651)5月日
 全州府西方山鳳栖寺開刊

표지는 근래 새로 개장된 상태로 보아 불복장에서 발견된 책으로 보인다. 표지의 좌측 중앙부분에 '佛說大報父母恩重經 單'이란 표제가 묵서되어 있으며, 표지의 우측에는 간기를 기록해 놓았다. 책의 크기는 26.6×18.0cm로 추정된다. 표지를 넘기면 권수제면이 없이 바로 '佛告阿難'부터 시작되고 있어, 1장부분이 일실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판본을 보면 권수제는 먼저 한자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부모의은감는경이라'라는 한글 서명이 부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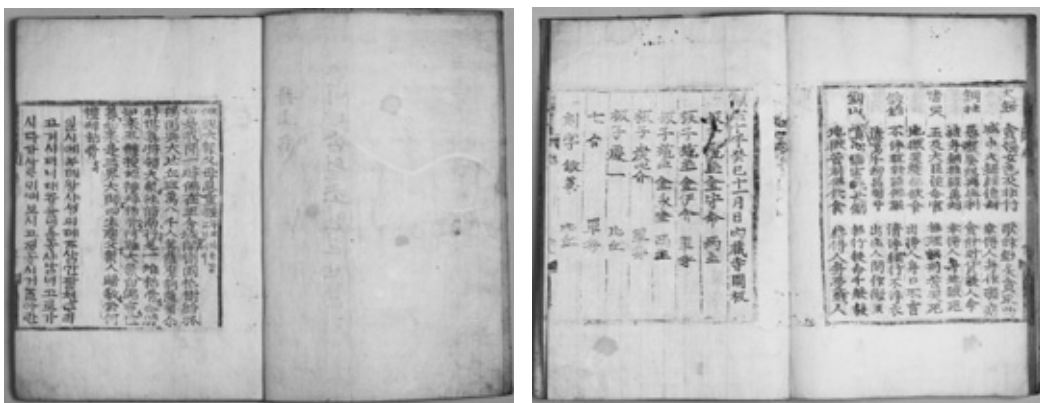
그리고 다음 행으로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본문은 앞부분에 한문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로부터 1자를 내려서 한문의 내용을 번역한 언해문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판식의 특징을 보면, 邊欄은 四周單邊으로 초역본에 비해 광곽이 비교적 굵직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판면에는 부분적으로 계선이 나타나 있다. 匡郭의 크기는 반곽을 기준으로 18.8×14.3cm로 계속되는데, 수차의 복각 과정에서 초역본에 비해 세로의 길이가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半葉을 기준으로 모두 10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행은 18자씩 배자되어 있다. 板心部에는 어미의 상하로 大黑口가 들어 있으며, 그 사이에 상하로 흑어미가 내향하고 있다. 상하의 어미 사이로 '恩'이라는 板心題가 새겨져 있으며, 그 아래로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본문의 끝에는 '報父母恩重眞言'과 '佛說往生眞言'이 들어 있으며, 권말제에 이어 다음 장에 '大清順治8年歲次辛卯(1651)5月日 全州府西方山鳳栖寺開刊'이란 간기가 보이고 있어, 이 책이 전라도 전주의 서방산에 소재하고 있는 봉서사에서 1651년에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기의 다음 행에는 대시주 '楚元比丘' 등의 시주자가 기입되어 있으며, 연판은 '海元', 각수는 판독이 불가능하며, 大化士는 '性和'로 간행을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특징은 초역본과 흡사하나 여러 차례 복각 간행되면서 표기와 오자부분이 일부 수정되어 있으며, 판화의 〈父母十恩圖〉 부분의 집의 기둥이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어 다른 판본에 비해 초역본과 크게 변화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판화 12도인 〈周堯須彌圖〉 역시 양각부분을 넓게 하여 초역본의 음각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井邑 內藏寺板(1653년)

다음으로 소개하는 언해본은 1653(효종 4)년에 전라도 정읍의 내장사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사진 3〉 정읍 내장사판(1653년)

이 내장사본은 또한 현재까지 국내에 유일한 판본으로 보이는데, 서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四周單邊, 半郭 17.5×14.7cm, 有界, 半葉 10行18字,
大黑口; 上下內向2葉花紋(黑)魚尾, 30.7×20.4cm,
刊記: 順治10年癸巳(1653)11月日 內藏寺開板

내장사본의 표지는 원래 상태로 보이며 표지의 좌측 중앙부분에 ‘恩重經 單’이란 약서명이 묵서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세로 30.7cm, 가로 20.4cm로 측정된다. 표지를 열면 ‘册主 廉/을미년삼월 초일일간출’이란 묵서 기록이 보이고, 이어 ‘부모의은감는경이라’는 한글서명이 역시 묵서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판각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을미년에 인출하여 본래 옆씨 성을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책임을 알 수 있다.

권두의 서명은 먼저 한자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부모의은감는경이라’라는 한글 서명이 부기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행으로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본문은 앞부분에 한문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로부터 1자를 내려서 한문의 내용을 번역한 언해문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판식의 특징을 보면, 邊欄은 四周單邊으로 광곽이 비교적 굵직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판면에는 부분적으로 계선이 나타나 있다. 匡郭의 크기는 반곽을 기준으로 세로 17.5cm이며, 가로 14.7cm로 측정되는데 초역본에 비해 세로의 길이가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半葉을 기준으로 모두 10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행은 18자씩 배자되어 있다. 板心部에는 어미의 상하로 大黑口가 들어 있으며, 그 사이에 上下內向의 2엽으로 보이는 화문어미가 간결하게 처리되어 있다. 상하의 어미 사이로 ‘恩’이라는 板心題가 새겨져 있으며, 그 아래로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난외에는 ‘金介’, ‘處日’, ‘金水命’이라는 시주명이 새겨져 있는데, 정작 시주질에는 板子 시주로 金守命, 金伊介, 處一 등의 이름이 다른 글자로 새겨져 있거나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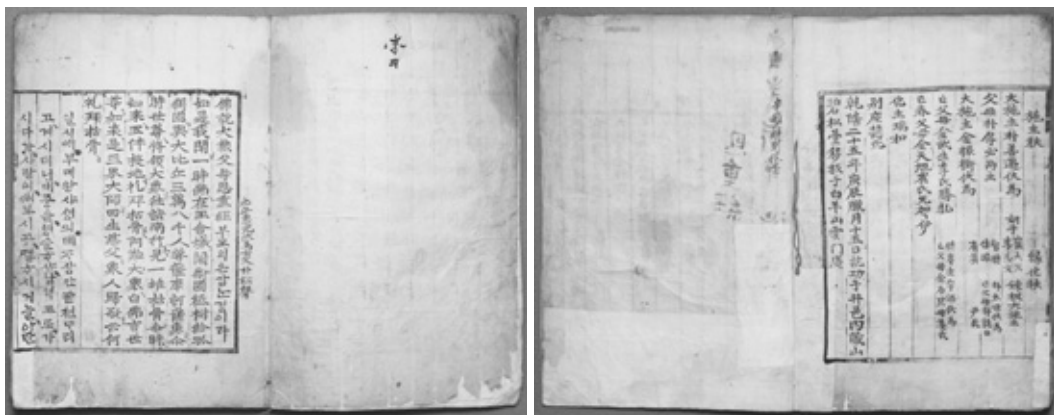
본문의 끝에는 ‘報父母恩重經’과 ‘佛說往生真言’이 들어 있으며, 권말에는 〈十法界頌〉과 〈十八地獄〉이 부록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라도 판본에서 주로 보이고 있다. 부록에 이어 ‘順治十年癸巳11月日內藏寺開板’이란 간기가 보이고 있어, 이 책이 전라도 정읍의 내장산에 소재하고 있는 내장사에서 1653년에 판각되었던 책판에서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기의 다음 행에는 김수명 등 여러 명의 판자시주가 기입되어 있으며, 각수로는 ‘敏英’과 ‘元俊’ 비구가 기재되어 있고, 화주로는 朴彥龍 거사가 주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특징은 초역본과 흡사하나 여러 차례 복각 간행되면서 표기와 오자부분이 일부 수정되어 있으며, 판화의 〈父母十恩圖〉를 보면 송광사본(1563)처럼 집의 기둥이 검정색으로 변화되어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판화 12도인 〈周堯須彌圖〉 역시 양각부분을 넓게 하여 초역본의 음각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 〈援喻八種圖〉의 상단부분의 寶蓋나 雲紋이 대부분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井邑 碧松臺板(1760년)

다음은 전라도 정읍의 내장산 벽송대에서 판각하여 목판을 백양산 운문암으로 이운해 간 판본이다. 이 언해본은 1760(영조 36)년에 전라도 정읍의 내장산 벽송대에서 개판되었다. 그런데 이 벽송대판은 앞의 3종과는 달리 초역본 계통이 아니라 금산사본 계통의 판본으로 초역본과는 전체적 특징이 상당히 다르다. 이 판본 역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으로 보인다.



〈사진 4〉 정읍 벽송대판(1760년)

벽송대본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四周單邊, 半郭 21.7×17.3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26.6×18.0cm.
 刊記: 乾隆25年庚辰(1760)臘月15
 日訖功于井邑內藏山碧松臺移板于白羊山雲門庵

표지는 새로 개장된 상태로 보아 불복장에서 발견된 책으로 보인다. 표지의 좌측 중앙부분에 ‘恩重經’이란 표제가 묵서되어 있으며, 표지의 우측에는 간기를 기록해 놓았다. 책의 크기는 26.6×18.0cm

로 측정된다. 권두의 서명은 먼저 한자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부모의은감는경이라’라는 한글 서명이 부기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행으로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본문은 앞부분에 한문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로부터 1자를 내려서 한문의 내용을 번역한 언해문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邊欄은 四周單邊으로 초역본에 비해 광곽이 비교적 굵직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판면에는 부분적으로 계선이 나타나 있다. 匡郭의 크기는 반곽을 기준으로 21.7×17.3cm로 측정되는데, 각 장마다 난외에는 시주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한 半葉을 기준으로 모두 10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행은 18자씩 배치되어 있다. 板心部에는 상하로 2엽화문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상하의 어미 사이로 ‘恩’이라는 板心題가 새겨져 있으며, 그 아래로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간혹 한글 번역문 중에 금산사본과는 달리 ‘世尊’ 또는 ‘阿難’ 등이 墨蓋子 형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들에 대한 존경이나 쉽사리 식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의 끝에는 ‘報父母恩重經’과 ‘佛說往生真言’이 들어 있으며, 권말에는 〈十法界頌〉과 〈十八地獄〉이 부록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라도 판본에서 주로 보이고 있다. 부록에 이어 다음 장에 安養居士인 高命說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詩云哀哀父母 生我劬勞 欲報之德 昊天罔極 夫養
生送死 不足以報 罔極也 仗佛加被之力 而超生淨
土 則可謂大報也 百行之源 無出於是 故大
士瑞和 其號定波也 願與法界衆生 同報父
母之恩 而重刊此經 以爲廣布之樂 凡爲人
子者 孰不感發 而興起也哉 大士 募緣鳩工
之餘 又刻寶篋陀羅尼板一秩 吳道子所畫
觀音像一板 釋迦遺跡圖一板 隨求陀羅尼
板一件 普益群生其志誠可尙也 隨喜助
緣人芳名列于後 安養居士高命說跋

발문을 쓴 高命說은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실록에는 1733년에 성균관에서 열린 전시에 응시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그는 만년에 전라도 정읍 인근 지역에 낙향하여 있을 때, 평소 왕래가 있었던 정과대사가 그의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해 은중경을 인시 광포하고자 하여 이러한 뜻을 발문에 기록해 줄 것을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발문의 내용을 보면 이때 은중경 뿐만 아니라 〈寶篋陀羅尼〉를 비롯하여 吳道子가 그린 〈觀音像〉, 〈釋迦遺跡

圖), 〈隨求陀羅尼〉 등도 함께 판각된 사실도 보이고 있다.

발문 다음에는 施主秩과 緣化秩을 구분하여 이 책의 간행에 참여한 인물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특히 각수에는 崔大天과 李多文이 공동으로 판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해본의 각판에 스님이 아닌 일반인이 참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화주에는 瑞和가, 별좌에는 慧元이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화주 瑞和는 법호가 定波로 高命說의 발문에도 보이고 있어 이 책의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참여자 명단 다음에 '乾隆25年庚辰(1760)臘月15日訖功于井邑內藏山碧松臺移板于白羊山雲門庵'이란 간기가 보이고 있다. 이 간기를 통해 이 책은 1760년에 전라도 정읍에 소재하는 내장산 벽송대에서 판각되었으나, 그 경관은 보다 남쪽에 위치한 백양산의 운문암으로 이운하여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특징은 저본인 금산사본과 흡사하나 복각되면서 표기와 오자부분이 일부 수정되어 있으며, 판화의 〈父母十恩圖〉 부분의 집의 기둥 및 처마의 일부가 검정색으로 변화되어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판화 12도인 〈周堯須彌圖〉 역시 저본에 비해 양각부분을 넓게 하여 세밀하게 음각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 〈援喩八種圖〉을 보면 존상 주변의 雲紋이 생략되어 있어 대체로 간결하게 처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같은 해에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된 판본과 흡사한 느낌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수사본에 비해 저본인 금산사본에 충실히 판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IV. 湖南板〈父母恩重經〉諺解本 4종의 주요 特徵

1. 附錄의 收錄

이 글에서 소개한 언해본 4종은 공교롭게도 모두 호남지역인 전라북도 전주와 정읍, 그리고 전라남도 장성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에서 개판된 판본에 해당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언해본은 모두 14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저 2배에서 최대 7배까지 높은 간행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체 간행 종수의 절반 이상이 전라도 지역에서 개판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한 호남판 4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판된 언해본에서 잘 볼 수 없는 내용이 권말에 부록으로 수록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권말에 부록된 〈十法界頌〉과 〈十八地獄〉이다. 먼저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전제해 오면 〈표 3〉과 같다.

〈표 3〉 부록 내용

구분	항목	내용
十法界頌	地獄	作事胡爲不懼全 好邪殺盜便頑凶 生遭王法應誅戮 死墮阿鼻地獄身
	餓鬼	威勢欺能克陷人 慳貪嫉妬害農民 死爲餓鬼飢虛苦 萬劫那聞飲食名
	傍生	妄想貪癡癡更迷 勝人克彼要便宜 皮毛戴角還他債 不還心王只換皮
	修羅	傲慢貢高人我大 心強氣銳逞豪強 只因恣繼無明性 墮在修羅好鬪爭
	人道	忠於君主孝於親 敬老憐貧和弟兄 日月多行方便事 生生富貴在人家
	天道	慈悲喜捨結良緣 整路修橋砌井泉 食蔬持齋常念佛 多般因果得生天
	聲聞	因緣四諦號聲聞 五戒專持淨六根 四果頓超禪定力 八解六通證三明
	緣覺	高峯絕處住山林 採蕨充飢守寂然 十二因緣生滅法 獨明此理悟幽玄
	菩薩	大乘菩薩化娑婆 誓度衆生出愛河 密用潛行差別法 時中履踐六波羅
	佛(界)	慙苦交修三大劫 大悲大願愍衆生 功成行滿談經教 天上人間作福田
十八地獄	無間	貪愛爲母無明父 識境出佛睡眠殺 蘊聚和合是無間 出生人間作水牛
	犁耕	無惠無行作妄說 誤轉衆生仁義散 幾劫犁牛耕破舌 暫得人身作鬼身
	寒水	橫道作賊奪人物 剝皮牛羊傷凍死 經劫十八千億劫 暫得人間至貧人
	沸尿	愚癡無智貪飲酒 不擇尊親及兄弟 沸尿億劫經火城 暫得人間化糞虫
	火鋸	貪嫉女色及非行 歌詠針灸貪取物 城中火鋸經億劫 幸得人身作癩病
	銅柱	愚癡妄想興生利 貪計財貨殺人命 結身銅柱經萬劫 幸得人身地獄死
	啼哭	王及大臣使命官 無理誤刑苦哭死 地獄哭聲無飲食 出得人身口不言
	鐵錯	不淨靴鞋踏佛殿 清淨經行不淨衣 億萬千劫黑暗中 出生人間作微虫
	劔山	嗔心惱害執長劔 無行殺命千般殺 地獄苦刻無飲食 纔得人身受賤人
	鐵床	四鎖防陌里禁等 非取民物非法受 清泉花林化鐵城 纔得人身長臥病
	磔磨	心意顛倒石擲流 微虫種類壓石死 石城生滅千億劫 雖得人身無眼目
	鑊湯	飛鷹走狗禽獸殺 湯滅羽毛飲甘舌 不聞漿水常飲火 雖得人間壽不長
	爐炭	放火山間及林木 盡殺微虫火中死 火城地獄無劫數 雖得人身火燒亡
	淤泥	溪澗湖海及池塘 張曳羅網殺魚虫 周回水城及得出 幸得人身俱身濕
	衆合	父母師長常不孝 不和尊賢及兄弟 萬億劫中入無間 雖得人間作水牛
	石磧	盜取人物及衆食 將生反賣足財價 萬劫不聞水草名 雖得人間作蚊虻
	劔樹	墾土壩穴鋒鋒箭 路中安鏑爲事業 死入劔樹經億劫 還受人間無四肢
	八寒	不知五戒及十戒 行住坐臥常放逸
八熱	無數億劫恒受苦 雖得人身作蛇身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十法界頌〉은 모두 10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地獄·餓鬼·傍生·修羅·人道·天道·聲聞·緣覺·菩薩·佛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十八地獄〉은 모두 18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無間·犁耕·寒水·沸尿·火鋸·銅柱·啼哭·鐵錯·劔山·鐵床·磔磨·鑊湯·爐炭·淤泥·衆合·石磧·劔樹·八寒·八熱 등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 아래에는 7언으로 된 계송 형식으로, 매 항목마다 4절로 되어 있다.

2. 附錄의 收容

불경에서 十法界에 대해서 『法華經』에서는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상 등 6계를 六凡이라하고, 성문·연각·보살·불 등 4계를 四聖이라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의 저술인 조선초기 得通 己和의 『涵虛堂語錄』과 조선후기 蓮潭 有一의 『林下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부록의 내용은 불교 경전에 일찍부터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十八地獄〉에 대해서는 ‘4’, ‘8’, ‘16’, ‘18’ 등의 名數 개념과 명칭 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正法念處經』에는 ‘8’, 『大樓炭經』에는 ‘16’, 그리고 『經律異相』에서는 ‘18’이란 명수를 보이고 있다.¹⁰⁾

그리고 18지옥의 명칭이 아래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부록의 명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十八地獄의 명칭

구분	명칭
經律異相	一迦延典泥犁, 二屈遵典刀山, 三沸達壽典沸沙, 四沸典典沸沙, 五迦世典黑耳, 六蓋傜典火車, 七湯謂典鑊湯, 八鐵迦然典鐵床, 九惡生典蓋山, 十寒水, 十一毘迦典剝皮, 十二逕頭典畜, 十三提薄典刀兵, 十四夷大典鐵磨, 十五悅頭典水, 十六鐵穿, 十七身典蛆蟲, 十八觀身典銅
父母恩重經 (敦煌寫本 : 丁種)	一者飲銅地獄, 二者黑繩地獄, 三者炎石地獄, 四者沸尿地獄, 五者火車地獄, 六者鐵床地獄, 七者銅柱地獄, 八者鐵鋸地獄, 九者鐵網地獄, 十者鐵窟地獄, 十一者鐵丸地獄, 十二者劍輪地獄, 十三者拔舌地獄, 十四者灰河地獄, 十五者鍊湯地獄, 十六者熱鐵地獄, 十七者黑闇地獄, 十八者寒冰地獄

다만 이러한 개념과 명칭이 10세기 사이에 쓰여진 돈황본 『父母恩重經』의 丁種계통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돈황 사본은 『은증경』의 성립 과정을 살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이 돈황 사본은 찬술 시차에 따라 적어도 4계통으로 유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정중계통의 사본은 앞서 유포된 3종의 사본에 비해 내용이 많이 증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十八地獄’에 대한 개념과 명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로 간행된 목판본에서는 경문 내용이 더욱 증입되면서 부록 내용은 증입된 내용으로 그 개념은 흡수되고 구체적 용어 명칭은 사라져 버린 듯하다.¹²⁾

그런데 이러한 부록 형식은 현재 관문사에 소장되어 있는 1563년에 간행된 전라도 송광사에서 개관된 언해본에서 처음으로 보이고 있고, 이후 이 내용은 1882년에 편찬된 『일용작법집』의 부록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부록의 내용은 이미 조선전기에 불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송광사본에서 처음으로 부록 형식으로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 개관된 송광사본을 저본으로 같은 지역의 백암사와 내장사에서 복각 간행하면서 그대로 수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³⁾

10) 張椿錫, 目連說話新論(서울 : 景仁文化社, 2001), pp.195-198.

11) 宋日基, “敦煌寫本『父母恩重經』의 校勘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35輯(2000. 12), pp.145-181.

12) 宋日基, “韓國本『父母恩重經』形成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3), pp.261-282.

13) 송광사본의 언어 현상과 도상의 변화양상으로 보아 1세기후에 간행된 백암사본과 내장사본은 동일 계통의 복각으로 판단된다(이호권, “父母恩重經諺解의 異本에 대한 研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0집(2005. 8), pp.65-87).

V. 結 論

이상으로 호남지역에서 개관된 『부모은중경』 언해본 4종을 근래 새로 발견하여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4종의 서지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주로 검토되었다.

1.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1257년에 조성된 고려사경을 비롯하여 1300년과 1378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2종의 판본을 포함하여 모두 85종의 목판본이 간행되었는데, 이 중 한글본을 포함한 언해본은 40종에 이르고 있다.
2. 은중경언해본은 1545년에 전라도 전주인근 지역에서 吳應星에 의해 처음으로 언해된 이래 36종이 간행되었는데, 이 중 전라도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4종이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3. 이번에 새로 소개한 언해본은 장성 백암사판(1628년), 전주 봉서사판(1651년), 정읍 내장사판(1653년), 정읍 벽송대판(1760년) 등 4종으로 공교롭게도 모두 전라도 지방에서 개관된 판본이며, 이는 화암사본 계통의 3종과 금산사본 계통의 1종으로 구분된다.
4. 그런데 호남판 4종 중 장성 백암사판(1628년), 정읍 내장사판(1653년), 정읍 벽송대판(1760년) 등 3종에는 〈十法界頌〉과 〈十八地獄〉이 권말에 별도로 부록되어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5. 이러한 부록 형식은 1563년에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개관된 언해본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백암사본(1628년)과 내장사본(1653년)은 송광사본을 저본으로 복각하여 간행하였기 때문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6. 부록된 〈十八地獄〉의 명칭은 비록 지옥의 명칭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10세기 무렵에 쓰여진 돈황 사본 중 정종계통의 사본에서 등장하고 있어 이 시기에 이미 그 개념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내용이 1882년에 간행된 『일용작법집』에도 부록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밝혔다.

이번에 새로 소개한 언해본은 공교롭게도 모두 호남지역에서 개관된 판본에 해당되나, 앞으로도 언해본 외에도 5종 정도는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처럼 많은 종수의 간행 빈도를 보이고 있는 『은중경』은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공덕경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참 고 문 헌

- 禿氏祐祥. “父母恩重經の異本に就て.” 宗教研究, 第5卷, 第4號(1928), pp.116-123.
馬世長. “〈父母恩重經〉寫本與變相.” 敦煌研究文集: 敦煌石窟經變篇(蘭州: 甘肅民族出版社, 2000).

- 박도희.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의 圖像 형성과정.” 美術史學報, 23輯(2004. 12), pp.111-154.
- _____. “花岩寺刊 父母恩重經 版畫의 圖像과 意義.” 佛教美術, 15호(1998), pp.133-166.
- _____.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1997.
- 宋日基. “敦煌寫本〈父母恩重經〉의 校勘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35집(2006. 12), pp.145-181.
- _____. “韓國本〈父母恩重經〉形成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3), pp.261-282.
- _____.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2집(2001. 12), pp.181-200.
- _____. “朝鮮時代〈行實圖〉板本 및 板畫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1집(2001. 6), pp.79-121.
- _____. “韓國本『父母恩重經：언해·한글』의 板本 및 한글서체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5권, 제2호(2000 여름), pp.1-30.
- _____. “韓國本〈父母恩重經：漢文〉의 板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9집(2000. 6), pp.179-218.
- 孫修身. “山東成武白浮圖村〈父母恩重經〉碑校記.” 敦煌研究, 第2期(1997), pp.128-133.
- _____. “『佛說報父母恩重經』板本研究.” 段文傑敦煌研究十年紀念文集(北京：世界圖書, 1996), pp.239-249.
- 新井慧譽. “房山石經의〈父母恩重經〉.” 印度學佛敎學研究, 第51卷, 第1號(2002. 12), pp.37-43.
- _____. “〈父母恩重經〉의 報本의 特徵.” 二松學舍大學論集, 第44集(2001. 3), pp.175-184.
- _____. “〈父母恩重經〉의 丁蘭本について.” 佛敎學, 第37號(1995. 12), pp.23-43.
- 俞弼在. “華藏寺板『父母恩重經諺解』에 대하여.” 震檀學報, 제84호(1997), pp.227-237.
- 尹珍媛. 조선시대 父母恩重經의 開板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8.
- 이호권. “父母恩重經諺解의 異本에 대한 研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0집(2005. 8), pp.65-87.
- 張湧泉. “敦煌本〈佛說父母恩重經〉研究.” 文史, 第49期(1994), pp.65-86.
- 張椿錫. 目連說話新論. 서울：景仁文化社, 2001.
- 鄭阿財. “敦煌寫本〈父母恩重經〉研究.” 中興法商學報, 第18期(1983).
- _____. “〈父母恩重經〉傳佈의 歷史考察.” 新世紀敦煌學論文集, 巴蜀書社, 2003.
- 趙純香. 韓國版 父母恩重經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1976.
- 胡文和. “安岳臥佛溝唐代石經.” 四川文物, 第2期(1986).